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19 No.3 Serial No.80 _ 2010. 06

경성부청사 실내공간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ior of the Kyungsung Municipal Government Building

Author 오인욱 Oh, In-Wook / 명예회장,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Abstract As ongoing construction of a new municipal government building leads to the destruction of the interior of the Kyungsung Municipal Government Building(currentlySeoul Metropolitan City Hall) despite its enormous historic valu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unique features of spatial composition and interior design of the Kyungsung Municipal Government Building, which is widely known as a typical example of public architecture of the 1920s. The primary goal is to perform a systemic arrangement of its interior data and define the modern historic implications of its interior design, thereby laying the foundation for a compilation of the history of modern interior design.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Kyungsung Municipal Government Building－an explicit symbol of Japanese colonial supremacy－has served as the administrative hub of a hugecity for 19 year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for 64 years following Korea's independence from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architectural history, it also represents modern transitional buildingsin their shift from historicism into modernism, as manifested by its reasonable placement of interior space matching well with topographical form, easy access by citizens, open office space, and, excluding decoration, a simple and non-authoritarian exterior.
Its interior design style follows Western historicist architecture, whereasits simple interior decoration embodies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pragmatic simplicity. Such elements are notably found in the Grand Central Hall, the Municipal Head's Reception Room, and the Grand Conference Room.

Keywords 근대건축물, 경성부청사, 실내공간표현
Modern Architecture, Kyungsung Municipal Government Building, Interior Expression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876년 개항이후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 근대화 되어지는 과정에서 생겨난 건축적 산물인 근대 건축물들은 우리의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건축사에 있어서 서양건축이 처음으로 도입되게 되는 변환기인 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오면서 역사적 가치와 함께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근대 건축물들 중 상당수가 멸실 또는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대건축물의 형성 시기가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만큼 일제에 대한 피해의식과 경제적 논리에 의해 근대건축물의 실내공간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법적, 제도적 보호 없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1920년대의 공공건축물인 경성부청사(현 서울시청)의 신청사 건립으로 사적으로 보존이 외벽중심으로 일부 보존되어지고, 내부공간들이 파괴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경성부청의 실내 공간구성과 실내디자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앞으로 근대 실내디자인사를 정리하는데 있어 근간이 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의 실내공간의 체계적 자료 정리와 실내디자인의 근대 사적 의미를 정리하는데 기초적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는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근대건축물의 실내디자인사를 정리하고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하여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지고, 방치되는 근대건축물이 건축물로서 뿐만 아니라 실내공간이 더 더욱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와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다시금 각인시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경원대학교 2010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짐.

아울러 외관의 형태로만 살아 남게된 시청사의 자태보다 역사의 흐름을 간직한 내부공간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근대사적 의의를 찾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현재 근대건축물 중 대표적인 역사 주의 양식의 특징을 갖는 사례로 특히 장식이 제거된 근대주의 실내디자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경성부청(서울시청사)의 주요실의 디자인 요소와 공간의 형태에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관련문헌과 도면, 사진, 그림 등과 특히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의 건립 당시의 기록을 확인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최근 서울시청 신축을 위해 만들어진 서울시청사 정밀 실측 보고서를 토대로 주요 실들의 실내 공간구성을 파악하여 경성부청의실내 요소들을 추출하여 실내디자인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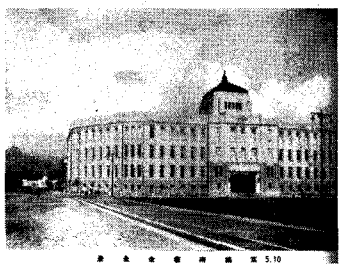
2. 경성부청의 건립 배경

2.1. 경성부청 건립당시의 현황

<그림 1> 경성부청시절의 구영사관

일제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강제로 맺고, 조선에 대한 실권을 장악하게 된다. 또한 같은 해 통감부 및 이사정 관제를 공포하고, 통감부를 서울에 설치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1906년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의 옛 한옥청사를 통감부로 사용하다 1907년 남산 왜성대에 르네상스풍의 2층 목조로 통감관저와 나란히 세웠다.[1] 그 후 총독부 청사들이 그들의 위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자 본격적으로 경복궁 앞의 조선총독부를 건립하게 되었다.

1897년 대한제국 출범시에도 유지되었던 한성부가 1910년 한일합방 후 대한제국의 수도는 일국의 수도에서 경기도의 일개 도시인 '부(府)'로 그 위상을 격하시켜 경성부로 바뀌었다. 따라서 서울이 경성부로 불렸기 때문에 경성 부청사로 불려 졌다.



<그림 2> 경성부청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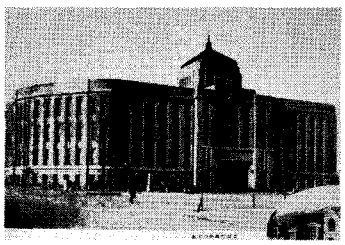
첫번째 경성부청사로 사용된 건물은 당시 본정(현 충무로)1정목에 위치했던 건물로 1895년 7월 일본 영사관으로 지어졌다. 영사관으로 지어진 건물은 1905년 을사조약이후 이사정으로 사용되었다가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경성 부청으로 사용되어 졌다.[2]

경성부청은 1914년 10월에 발포된 부제령에 기초하여 제정된 경성부를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1910년 10월에 공포 시행된 조선총독부 칙령 제357조의 지방관제에 의해 종래의 한성부가 경성부로 고쳐져 경기도 소속이 되었다.[3]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일본의 본격적인 통치가 시작되고, 이에 따른 관청 건물이 필요로 했다. 우리나라의 근대관청은 일제의 무단통치시기에 식민지 통치 세력의 지배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겨난 시설물이라 볼 수 있다.

한일 합방이래 현 신세계 백화점 일대(충무로 1가)에 있었던 구 일본 영사관을 경성부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4] 경성부청사가 건립신축될 당시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조선을 통치하고 있던 시기이고, 1920년대에는 이미 고전주의 양식이 퇴보하고 있었다. 새로운 국제건축양식이 당시 젊은이들에게 강하게 인식될 때였다. 준공식이 있었던 1926년 당시 서울에는 석조건물로 독립문(1896-1897)과 덕수궁 내의 석조전(1900-1910), 한국은행(1908-1912)등이 있었고, 기타 건축물 대부분은 석재 혼용 벽돌조이거나 모조 석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총독부 청사가 세워질 무렵인 1926년 전후, 서울 한복판에 세워진 건축물로는 대략 연세덕수궁(1921-1925), 서울역(1922-1925), 성공회(1922-1926), 서울시청(1924-1926), 동아일보사(1925-1926), 대법원청사(1927-1928)등이 있었다.[5] 이처럼 이 시기에 반식민지, 반봉건적 사회의 새로운 공공건축물들이 출현하고 있던 시기였다.

2.2. 경성부청의 연혁과 건축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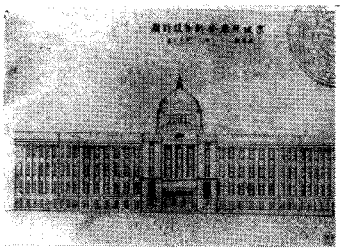


<그림 3> 경성부청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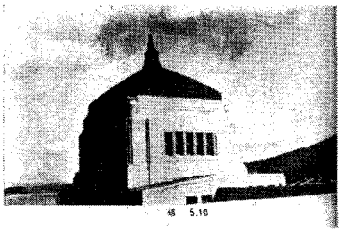
경성부청사는 1926년 10월 준공하여 1975년 11월에 북서쪽 후관 건물을 증축하고, 1986년 8월에 신관(동측)을 증축하여 사용해오다 실내디자인 측면에서 중요한 공간인 대회의실(태평홀)은 2001년 4월에 전면 인테리어공사를 하여 현재에 이르고 2003년 4월에 등록문화제 제52호로 등록되어 2003년 10월에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2006년 3월에 동·북측 건물을 철거하고[6], 2008년 5월에 신청사 건

1) 윤일주, 한국 양식 건축 80년사 해방 전편

2) 경성부, 경성부사 2권, 1934, p.649
3) Ibid.
4) 김정동, 일본을 걷는다, 한양출판, 1997, p.161
5) Ibid.



<그림 4> 경성부청 입면도



<그림 5> 경성부청 중앙 탑

립으로 본관동 업무시설을 이전하고 2008년7월부터 서측 건물을 철거하면서 보존부위(중앙 현관, 중앙홀 및 파사드)를 제외한 본관의 부분 철거가 이루어졌다.

1920년대 말의 건축은 대체로 근대건축으로의 과도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장식의 단순화나 새로운 기술, 구조의 도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경성부청을 비롯한 경성제대(京城帝大) 제교사들과 경성제판소 등의 건물외관 장식의 단순화와 패간의 개방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의 건축의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7]

경성부청은 조선총독부청사와 같이 1920년대 중반에 완공된 대규모 관공서 건축물로서 양식주의 경향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경성부청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로 되어있고, 외벽의 벽체는 벽돌로 쌓고, 외벽면은 하부 징두리에 화강석을 붙이고 윗부분은 몰탈칠로 석조 모양을 내고 있다.

청사의 규모는 4층 높이의 건물로 정면 중앙부 탑은 6층이나 후면 회의실(태평홀)은 3층, 좌우 사무실 앞 복도의 일부는 2층으로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를 지형에 따라 설계하였다. 또한 경성부청은 중앙 탑의 돔이나 창문구조 등에서 일본 국회의사당을 모방한 절충주의의 형식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성부청은 당시 시공중에 있던 일본 국회의사당의 영향을 받아 지상 3층 지하 1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 중앙에 높고, 큰 돔을 올려 중심부를 강조하였다. 정면 중앙부에 열주를 세우고 그 좌우로 연속되는 외벽에는 창을 두어 음영을 강조했고, 엄격한 좌우 대칭을 이루어 권위적이고 엄격성이 강한 건물이 되었다. 당시 서구 열강이 식민지에 앞 다투어 지은 전형적인 식민지풍의 제국주의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양식은 그리스, 로마의 신전을 원형으로 동서양으로 이동하면서 절충, 변화된 것을 말하며, 평면과 입면 구성을 미적원리로 하여 완벽한 비례로 대칭화시켜 조화를 이루었다.

6) 서울특별시, 서울시청사 정밀 실측 보고서, 2009. 3, p.32

7) 김훈, 1929~30년대 한국의 모더니즘 건축의 요소별 수용과 통합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2005, p.47

경성부청의 설계는 조선총독부에서 직접 담당하였고, 1925년 3월에 착공하여 1926년 10월에 준공되었고, 이의 설계는 총독부 건축과장 岩井張三郎, 건축기사 笹慶一등이 담당하였다.[8]

경성부청은 '산(山)'자형으로서 타 지역보다는 지반이 약간 높은 편에 속한다. 지하 1층, 지상3층의 근대식 건물로 건평은 668평 4합(合) 2작(勺)이며, 실수는 모두 97실이다.[9] 그리고 내부 공간에서는 부분적으로 칸막이벽이 사라져 개방적인 내부공간이 나타난다는 점이 다른 건축물에 견주어 특이한 점이다.

3. 경성부청의 실내공간 구성

3.1. 평면구성과 층별 공간구성

(1) 주요 실내공간 구성

현관의 계단을 오르면 대현관 홀이 있고, 다시 계단을 오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중앙홀(廣間)이 계획되어 있다. 이 홀의 주위는 바닥이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고, 1, 2, 3층 공동 홀로서 이 홀로부터 3방향의 복도로 통하고 있다. 건물의 중심에 있는 중앙홀의 면적은 약 55평, 높이는 약 4.6m로 전체 마감은 화강석 물갈기와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리고 5층 건축의 상층과 지하층을 뺀 3층은 중앙대홀을 중심으로 주변에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다.

경성부청의 실내디자인이 특별히 계획된 실로는 2층 응접실, 3층의 부윤실에 인접해서 부윤응접실이 있다. 그 뒤에는 대회의실(태평홀)이 위치해 있다. 4층에는 정면에 제2회의실, 소회의실 등이 배치되어 있고, 층별 실내 공간구성은 <표 1>[10]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1> 층별 주요 실내공간 구성

구 분	실내공간 구성
1층	호적계, 세무과, 안전고, 수부실, 숙직실, 전화 교환실, 수도과분실, 공중식당, 소사실, 탕비장, 기관실, 전기실, 충전실, 창고, 전화실등
2층	세무과, 회계과, 수도과, 위생과, 문서계, 연선계, 응접실 등
3층	부윤실, 부윤응접실, 회의실, 의원공실, 토목과, 비서계, 내무계— 권업계, 학무과, 신문기자실 등
4층	정청, 귀빈실, 귀빈응접실, 의원공실, 도시계획계, 응접실, 위원회실, 식당 겸 도서열람실, 기타 예비실 2실, 승강기 기계실
5층	청장실, 승강기 기계실
6층	응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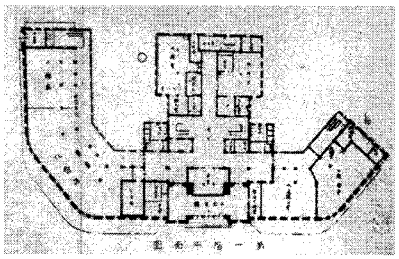
8) 朝鮮と建築, 1926년 10월, p.7

9)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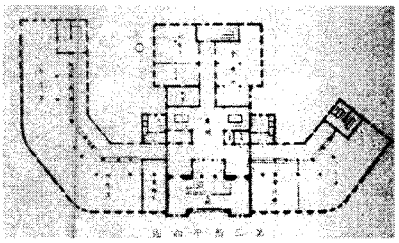
10) 서울특별시편찬위원회, 서울 600년사 제6편, 일제 침략하의 서울, 1990

(2) 평면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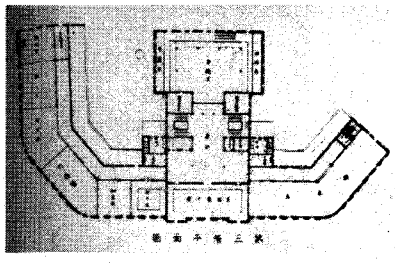
경성부청 건물의 기본적인 평면 계획은 건물 중앙탑을 설치하고 좌우대칭으로 처리하여 대지 조건에 따라 비대칭형으로 구성된 평면 형태를 숨기고 있다. 특히 평면 구성은 정면의 주출입구와 홀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약간의 변형된 山자 형태로 도로를 따라 휘어진 입면 안에서 중심성과 대칭성을 드러내기 위해 의장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출입구의 위치들은 건물의 정면과 측면 부분 끝부분에 배치되어 동선의 원활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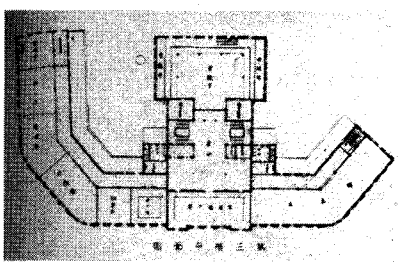
<그림 6> 1층 평면도



<그림 7> 2층 평면도



<그림 8> 3층 평면도



<그림 9> 4층 평면도

무엇보다도 중앙부에 주요실들을 배치하여 외부에서 볼 때 균형잡힌 평면으로 계획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편복도를 구성하여 여러 가지 기능의 실들을 외곽 둘레에 배치를 하였다.

1층은 외부에 면하고 있는 복도로 부터 각 실들이 배치되어 있고, 2-4층에서는 동, 서쪽과 남쪽의 실들은 한쪽에는 외측 회랑, 내부 쪽은 복도들과 면하고 있다. 각 층에 형성된 긴 장방형의 공간은 외측 회랑의 개구부와 내부공간의 창문, 그리고 외부 방향에 있는 복도의 창문이 동일한 위치에 형성되면서 각 기능에 필요한 면적에 따라 나뉘어지는 방법으로 계획되었다. 또한, 동선 계획은 중앙홀(廣間)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모든 동선은 개구부의 위치와 공간내의 활동 영역, 통로와의 유기적인 결합을 하면서 외벽 둘레에 위치한 여러 기능의 각 실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건물 내부 2, 3, 4층의 전면 쪽 중앙부에 소규모의 중앙홀과 좌·우홀이 있다. 이것들은 복도 및 현관과 연결되어 원활한 동선체제를 구성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각 층에서의 직선형 통로는 연속적인 공간을 위한 가장 좋은 구성요소이며 순환하는 형태의 통로로서 평행한 면으로 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공간의 흐름으로 처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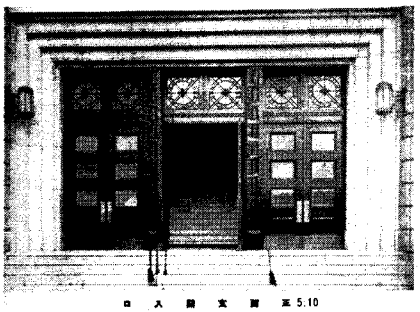
또한, 복도와 계단실 등의 앞에 위치한 후부홀 복도의 좌·우의 양측 면에 각각 2개씩의 원기둥을 배치하여 복도의 기능과 함께 전실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계획되었다.

3.2. 공간별 실내디자인

(1) 정면 대현관

1) 공간구성

평면 형태는 양측 전면을 약간 돌출시킨 장방형에 배면중앙 부분을 뒤로 덧붙인 형태로 정면 대현관부분의 공간만 본다면 "凸"자와 같은 형태로 배면 양측은 복도와 통하는 계단이 위치하는 공간이다. 중앙정면 출입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주 현관으로 들어서게 된다. 주현관 내부에서 2층으로 바로 진입 할 수 있는 높은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2층으로 바로 오를 수 있는 계단이 내부에 설치된 것은 외관에서 갖는 위압감을 줄이고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며, 전체적 외관의 이미지가 매우 수수한 의장적 특징을 나타내고져 했기 때문이다. 계단과 출입문 사이는 홀이라고 하기에는 좁은 폭의 바닥이 있고 계단 양 옆으로는 1층 복도로 나가는 출입문이 위치해 있다. 대현관의 공간구성에서 계단 형태로 여러번 꺽은 벽체로 출입문 방향으로 시선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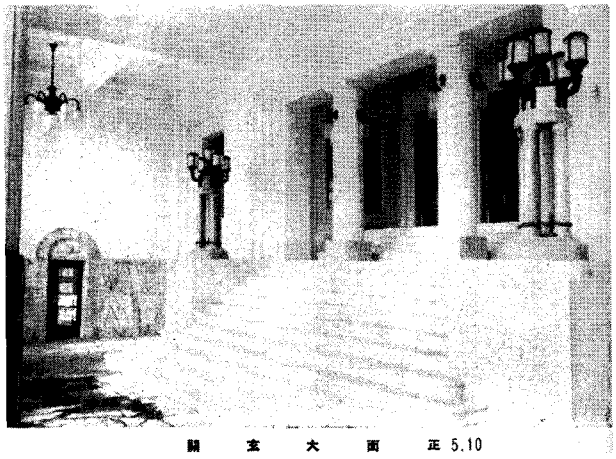


<그림 10> 경성부청 정면 대현관 출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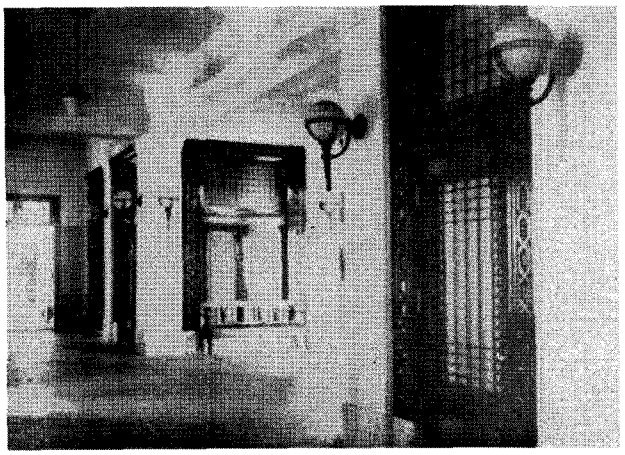
<그림 11> 경성부청 전면현관홀 조명대

2) 실내디자인

정면 대현관은 회의실(지금의 태평홀)과 함께 경성부청사 건물내에서 비교적 화려한 곳이다. 정면 대현관 부분은 장식요소가 기둥들 사이에 이루



<그림 12> 경성부청 정면 대현관



<그림 13> 경성부청 광간

어진 3개의 출입구 틀에서 서로 교차하면서 연속적으로 둘러 싸여 있다. 중앙내부 현관 전면과 벽면에는 3칸의 출입문이 있으며 양측 벽면은 대리석으로 마감된 장식창을 각 2개씩 두고 있다. 벽면과 천장, 기둥 등은 대리석과 석고장식을 기본으로 하였다. 내부 벽체는 대리석 징두리벽을 두고 상부 벽체와 천장은 회반죽 바름으로 마감되어 있다. 중앙의 주출입문 상부 벽체는 시선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출입문 양쪽에 간단한 조명등만 설치하고 장식을 절제하고 비워 두었다. 내부 좌우 입면 구성은 대칭 형태로 양측에 장식창을 둔 것이 이색적이다. 이 장식창은 징두리 벽과 동일한 재질의 대리석을 사용하고 대현관 내부 천장의 내부 마감은 구조체 바탕에 회반죽을 바르고 보와 보 사이 천장면에 석고문양 장식을 하고 조명등이 설치되는 위치를 중심으로 원형의 문양을 두고 그 둘레에 방사상으로 삼각형 모양을 두른 형태를 하고 있다. 계단참 상부 공간에는 졸대위에 회반죽 바름으로 처리 하였다. 출입문 내·외부 바닥은 마름꼴의 문양을 두었는데 외부는 화강석 판석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418mm×418mm 크기의 흑색 석재로 마름모 문양을 넣었으며 내부는 주변 바닥 재료의 크기와 색상을 달리하여 정방형과 마름모, 원형이 중첩되도록 문양을 사용하고 있다. 계단의 양쪽에는 대리석 판석을 붙인 대석(臺石)위에 청동 주물제품으로 세밀하고 미려한 제작 솜씨을 엿볼 수 있는 스텐드등이 설치되어 있다. 대현관에는 이 스텐드등 외에 천장에 보이는 조명등과 그 주변의 석고 조각장식등으로 외관에 비해 화려함을 볼 수 있다.

(2) 광간(廣間)

1) 공간구성

대현관을 지나면 건립당시 광간(廣間)으로 불리던 중앙홀은 내부공간에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공간이다. 이 광간은 수직, 수평 동선이 집중된 공간으로 광간을 지나면 좌, 우에 정방형의 평면 형태를 가진 작은 홀이 있다. 입면 형태는 중앙홀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2) 실내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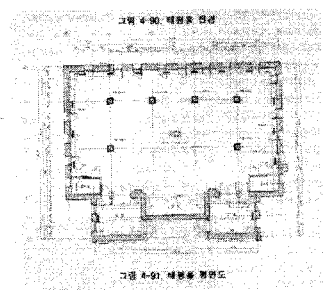
중앙홀 및 좌·우홀의 벽기둥, 천장 역시 석고장식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기하학적 무늬로 되어있다. 벽의 기둥과 주두 부분에는 그리스풍의 아칸서스 문양 부조장식으로 되어 있다. 좌·우홀의 엘리베이터실에는 벽면에는 청동으로 된 브라켓이 설치되어 있으며, 천장중앙에 샹들리에 조명이 설치되고 그 주변으로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3층은 부윤실(府尹室)과 부윤응접실(府尹應接室), 귀빈실과 응접실 등의 특별실이 인접한 곳으로 마감 재료 등에 좀 더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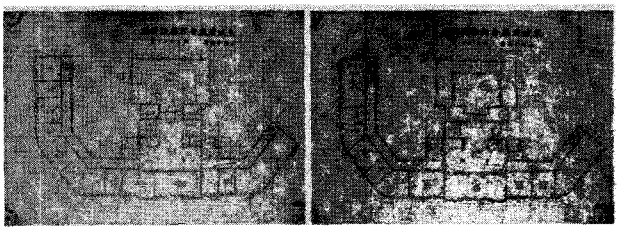
(3) 의장(회의실=太平홀)

1) 공간구성

3층 광간(廣間)에서 바라보이는 북쪽에는 태평홀이 위치하고 있다. 건립당시 의장(議場)으로 불리던 회의실(會議室)로 현재의 명칭인 태평홀은 내부공간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경성부청부 건물 내에서 실내 바닥 면적이 제일 넓고 천장고 또한 제일 높아 단일실로는 규모가 제일 넓은 곳이다. 태평홀은 광간(廣間)인 중앙홀과 연결된 출입홀이 있으며, 출입홀의 양쪽으로 대칭 형태의 전실이 있는데, 전실로 진입하여 90° 방향에는 태평홀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다. 3층의 전체가 의장(회의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면에 방청석을 두고 있다. 태평홀의 바닥 면적은 100.365평에 달하며 내부공간은 3, 4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형성된 개방공간으로, 장방형의 평면 형태이다. 정면 방향에는 아치형으로 꾸민 무대가 설치되어 있다. 또, 출입문 바로 옆에는 준비실이 위치하고 있다.



<그림 14> 태평홀의 3층 확대평면



<그림 15> 경성부청 3, 4층 회의실 평면도

태평홀 내부는 3칸×2칸의 내진주가 배열되어 있으며, 4층까지 개방되어 있다. 4층까지 개방된 중앙부분의 반자고는 가장 높은 부분까지 10,034㎜이며, 만곡점까지의 반자고가 9,541㎜, 가장 낮은 부분이 8,450㎜이다.[11] 내부 남측 벽면에 만들어진 무대는 태평홀에서 가장 특징적인 공간으로, 돌출된 무대는 7,290㎜×2,334㎜의 평면을 가지며 면적은 17.01㎡이다.[12] 전면은 아치와 낮은 장식기둥으로 이루어져있다.

기둥과 외벽 사이는 회랑이 되며 반자를 두고 반자에 매입등을 설치하였다. 또, 출입문 바로 옆에는 준비실이 위치하고 있다. 태평홀은 높은 층고로 인해 평면에서 보여 지는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외벽면을 따라 세로로 좁고 긴 창이 배열되어 있으며, 외부는 오르내리창, 내부는 여닫이창이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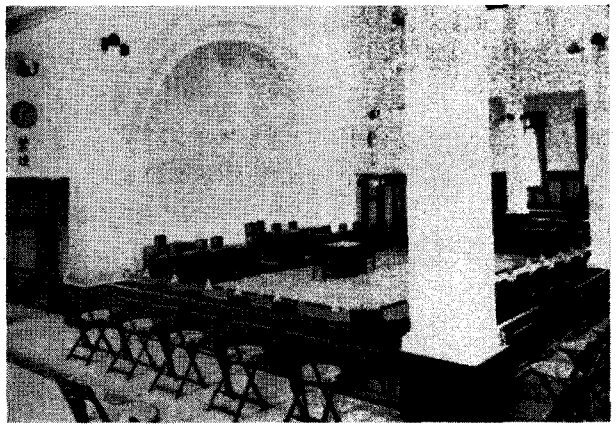
2) 실내디자인

태평홀은 바닥에 융단을 깔고 징두리판을 설치하고 바니스칠로 마감하고 방청석은 3단으로 설치하고 커튼을 설치하여 암실이 되도록 시설하였다.[13] 기둥은 모두 6본이며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기단(Base)의 높이는 1,032㎜, 주좌(柱座)의 높이는 140㎜이며, 주신(柱身)의 높이는 3,159㎜이고, 주좌 상부에서 1,045㎜높이 위치까지 각 면마다 9골의 오목골(Fluting)이 장식되어 있다. 기둥은 하부 크기가 480㎜×480㎜, 상부 크기가 428㎜×428㎜로, 상부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민흘림기둥이며, 주두의 높이는 459㎜이다. 표면마감은 기단부를 제외하고 모두 회반죽 바름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주두에는 석고로 문양을 붙여 넣었다. 문양은 2개의 소용돌이가 있는 형태로 이오닉 오더(Ionic order) 양식을 취하고 있다.[14] 무대 중앙의 아치는 상심반원아치로, 내경이 3,404㎜이며, 주두 상부에서 아치 중심까지의 높이는 400㎜이다. 아치 면은 크게 4부분의 띠로 둘러져 있는데, 모두 석고로 이루어져 있다. 최외곽의 가장 돌출된 부분은 하부에 볼륨있는 1점 쇄선 형태를 한 구슬 띠 모양의 석고 문양을 교차로 배열하였으며, 두 번째 띠는 조적아치[15] 모양으로, 세로로 좁고 긴 막대모양이 배열되어 있으며, 거친아치[16]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막대모양 부분은 목재패널을 대어 모양을 잡았으며, 폭이 40㎜, 길이는 약 400㎜이다. 세 번째 띠는 형상화된 동물 문양을 부조(浮彫, relief)하여 붙였는데, 문양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며, 일본에서 복을 상징하는 부엉이 문양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아치 하부면은 주두 상부에서 268㎜지점에서 시작하는 액자형(額子形)의 음각을 하였다.[17] 무대 내부 측면벽 또한, 외부와 동일하게 반자와 연결되는 아치로 구성된 벽체이며 아치 하부와 유사하게 마감하였다.

(4) 부윤 응접실(府尹 應接室)

1) 공간구성

3층에 위치한 부윤 응접실은 3층 광간(廣間=중앙홀)에서 태평홀 남쪽으로 위치하여 경성부청의 중심부를 나타내고 있다. 중앙홀에서 남쪽의 정면에 출입문을 중앙에 두고 대칭으로 부출입문이 설치되어있어 중앙홀에서 대칭성을 강조하여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3층의 평면에서 특이한 점은 복도를 통하지 않고도 각 실을 통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 있다. 부윤 응접실의 크기는 18.767m×8.435m로 비교적 실의 면적이 넓은 편이다.



<그림 16> 경성부청 회의실(태평홀)

<그림 17> 경성부청 부윤 응접실

11) 서울특별시, 서울시청 청사 정밀실측보고서, 2009.3, p.245
12) Ibid.
13) Ibid.
14) Ibid.
15) 쐐기모양의 돌이나 벽돌을 쌓아올린 아치의 형태
16) 줄눈을 쐐기모양으로 하는 아치
17) Op. cit.

2) 실내디자인

바닥주위는 4척정도의 호두나무, 졸참나무의 무늬 마루를 깔고 중앙부에는 융단을 깔고 벽은 징두리판벽과 기타부분은 정청과 동일하게 디자인하고 벽은 모양있는 벽지를 붙였다. 천장과 벽면은 회반죽 플라스터마감으로 장식되었다. 커튼은 청록색으로 화조문양 직물에 비단을 사용하였다.[18] 재료마감을 살펴보면 실용성과 담백성을 표현하고 있다. 실내요소로서 보와 보 사이중심에 단순한 샹들리에 조명을 설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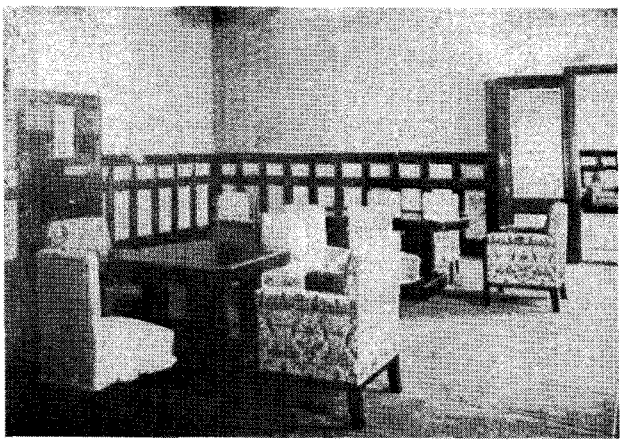
(5) 귀빈 응접실(4층)

1) 공간구성

귀빈 응접실은 정청(正廳) 바로 옆방으로 4층 중앙홀에서 동측 복도 첫번째 위치하고 있다. 평면의 구성은 1:1 비율로 되어 있으며, 각 실의 폭은 전면과 측면부분의 실의 폭이 같게 계획되어 약 18.9평 정도이다. 정청과는 쌍여닫이문을 두고 좌측에는 귀빈실과 연결되어 있다.

2) 실내디자인

귀빈응접실 역시 전체적으로 부윤 응접실(府尹 應接室)의 디자인과 같이 간결화, 실용화를 나타내고 있다. 귀빈 응접실에는 3개의 출입문이 있는데, 출입문들은 비교적 간단한 장식이 돌출하여 건축적인 틀과 함께 구성되었다. 지나친 가구 사용을 배제하고 필요한 가구를 적절히 배치하고 티 테이블 및 소파는 목재 소재의 모던한 느낌의 가구를 사용했으며, 이 공간 안에서 목재가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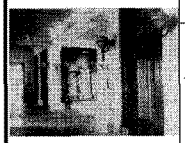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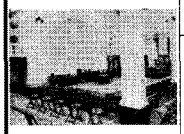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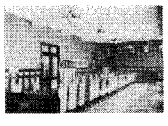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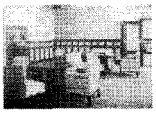


<그림 18> 경성부청 귀빈응접실

된 부분은 벽의 하부 부분은 징두리판벽이 사용되었다. 천장의 조명 역시 다른 실들과 같이 간결한 조명기구를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각 공간별 공간구성과 실내디자인의 표현 특성을 정리하면 <표 2>과 같다.

<표 2> 공간별 실내디자인 특성

구분	실내공간 표현특성		
정면 대현관	정면 대현관 실내	공간 형태 표현	현관홀과 중앙홀(廣間)사이에 계단이 형성되어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연스러운 계단의 천장 높이로 인해 공간의 다변화를 강조하여 흡수력을 표현.
		요소 디자인	벽과 기둥은 대리석과 석고장식으로 마감을 하고, 내부 좌우 입면구성은 대칭성을 갖게 하기 위해 양면에 장식창과 대형 스탠드 조명대를 설치하여 요소디자인을 강조함.
		표현 특성	중앙 정면 출입문을 통해 건물내부로 들어가서 2층으로 바로 진입 할 수있는 계단을 내부에 설치하여 외관의 위압을 줄이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수수한 의장적 특징을 나타냄.
광간(廣間)	 광간 실내	공간 형태 표현	내부공간에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여 수직, 수평 동선이 집중된 공간으로 좌우에 정방형의 형태를 가진 홀로서 중앙홀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음.
		요소 디자인	벽, 기둥, 천장은 석고 장식과 대리석으로 마감되고, 엘리베이터실의 벽면에 청동으로 제작된 문양이 있는 브라켓 조명등과 천장의 샹들리에를 요소디자인으로 사용.
		표현 특성	중심축을 기준으로 세로 대칭형을 이루면서 좌·우 정방형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엄숙한 표현을 하고 있음.
회의실 (태평홀)	 회의실(태평홀) 실내	공간 형태 표현	경성부청사 건물내에서 가장 넓은 3, 4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형성된 현대적 회의장의 개방공간으로 사무실과 독립적인 매스로 공간구성을 하고 있음.
		요소 디자인	기본적으로 벽은 회반죽 마감으로 바닥은 융단을 깔고 징두판을 설치하고, 주두내는 석고로 문양을 삽입한 이오닉 오더 양식을 취하고 있음.
		표현 특성	실의 남측부에 무대를 중심으로 대칭성을 강조하고, 같은 레벨에서 회의기능을 이루어지게 하는 실용적 표현을 하고 있음.
부윤 응접실	 부윤 응접실 실내	공간 형태 표현	중앙홀에서 대칭성 강조를 위해 남측의 정면에 출입문을 두고 실 전체의 정면성을 강조를 위해 측벽에 별도의 장식벽을 설치함.
		요소 디자인	벽면의 징두리판벽을 이용하여 디자인의 요소를 표현하고, 천장의 노출보 사이 사이에 조명등을 설치하여 응접 테이블의 중심을 표현해 주고 장방형의 공간을 조화롭게 표현.
		표현 특성	간결화와 실용화를 나타내기 위해 담백성을 표현함.
귀빈 응접실	 귀빈 응접실 실내	공간 형태 표현	정방형의 정직한 표현으로 실용적, 간결성을 표현.
		요소 디자인	벽면의 징두리판벽을 이용하여 디자인의 요소를 표현하고 천장의 노출 보 사이 사이에 조명등을 설치하여 응접 테이블의 중심을 표현.
		표현 특성	실내의 간결한 표현으로 모더니즘 양식과 절충주의 양식을 표현.

18) 朝鮮と建築, 1926년 10월, p.22

4. 결론

우리나라의 근대건축물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라 일제에 의해 유입되었기에 건축사적인 보존과 보호없이 소실되고, 철거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치욕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건축사적, 사용공간의 가치적 중요성도 잊고 지나온 그 시대의 생활상을 지우려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현재의 올바른 사용 공간에 대한 공간의 미학적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즉, 과거와 현재의 소통이 있어야만 진정한 우리의 실내건축공간의 가치를 이해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의 근대건축물 중 대표사례인 경성부청사의 실내건축공간에 주목하여 건립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실내 공간구성을 파악하여 경성부청사의 실내표현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경성부청사는 일본의 권력을 상징하려는 의도로 지어져 준공 후 일제강점기 19년간, 해방 후 서울특별시 청사로서 64년간 거대도시의 행정 중심 역할을 해온 역사적 가치와 건축사적 가치로서 대지 형태에 맞춘 합리적 배치, 시민의 편리한 접근성, 내부 공간에서는 부분적으로 칸막이벽이 사라져 개방적인 내부공간이 나타난다는 점이 다른 건축물에 견주어 특이한 점이다. 또한 장식이 억제된 탈권위적인 수수한 외관 등 역사주의 양식에서 근대주의(모더니즘)로 전이되는 과도기적 성격의 근대 건축물중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경성부청사의 실내디자인의 표현 특성을 살펴보면 부와 권력을 상징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과도한 장식과 장식 위주의 환경을 찾아 볼 수 없다. 특히 서양 역사주의 건축양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의장적 특징인 장식들을 간결하게 표현하여 실용적 간결성의 표현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특히 중앙홀(廣間), 부윤 응접실 그리고 의장(대회의실), 귀빈 응접실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고전주의 낭만주의 등을 고루 선택하였으며, 과거 양식을 피상적으로 복사하는 등의 절충주의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동시대 다른 나라에서 보여 지고 있는 근대건축 및 실내디자인의 모더니즘양식으로 이전되는 과도기적 건축양식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공간구성의 특징으로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콘크리트조가 보편화되면서 각층의 벽선(壁線)이 일치하지 않고, 기능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오픈플랜(open plan)이 나타나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배치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실내공간에 나타나는 특성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근·현대 실내공간에 나타나는 사회성과 역사성이 부여 될 수 있도록 한국 실내디자인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김영상, 서울시사편찬위원회, this is seoul, 1957
2. 김정동, 김정동 교수의 근대건축기행, 푸른역사, 1999
3. 김정동, 남아있는 역사 사라지는 건축물, 대원사, 2000
4. 김정동, 일본을 걷는다, 한양출판, 1997
5. 남경숙, 한국 실내건축의 개척과 성장, 미건사, 2002
6. 신영훈, 우리 건축 100년, 현암사, 2001
7. 윤일주, 한국 양식 건축 80년사 해방 전편
8. 허영섭, 조선총독부 그 청사 건립의 이야기, 한울, 1996
9. 문화체육부, 구조선총독부 건물 실측 및 철거보고서, 上·下, 1997
10. 서울특별시, 서울시청 청사 정밀실측조사 보고서, 2009.3
11. 김훈, 1929~30년대 한국의 모더니즘 건축의 요소별 수용과 통합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2005
12. 오선경, 한국 근대건축에 나타난 의장적 요소에 관한 연구, 고대 석논, 1985
13. 박홍, 한국 현대건축과 실내디자인의 상관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논, 1992
14. 송석기, 한국 근대건축에서 나타난 모더니즘 건축으로의 양식 변화, 연세대 박논, 1999
15. 京城府, 京城府史 제2권, 1934
16. 서울특별시편찬위원회, 서울 600년사 제6편, 일제침략하의 서울, 1990
17. 朝鮮と建築, 조선총독부신청사호, 제5집 제5호
18. 朝鮮と建築, 1926년 10월
19. http://cafe88.daum.net/c21/bbs

[논문접수 : 2010. 04. 28]
[1차 심사 : 2010. 05. 20]
[게재확정 : 2010. 06. 11]